

#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최우수대학 선정

## 군산대, 전자반도체분야 수상 영예

군산대학교(총장 광병선)가 2017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전자반도체 분야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지난 18일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학평가 결과발표 세미나에서 교육부와 경제5단체(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학교육협의회 공동명의로 인증패를 수여 받았다.

산업계관점 대학평가는 대학 졸업자의 역량과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력이 일치되도록 산업계 부서가 분야별 핵심역량, 관련 교과목 등을 제안하고 대학 교육과정의 부합정도를 평가하는 사업으로 교육부가 경제 5단체 등과 함께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75개 대학 160개 학과가 참여한 2017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는 소프트웨어, 전자반도체, 정보통신, 정유 석유화학, 화장품 분야로 5개 산업분야에서 평가가 진행되었으며 이중 군산대학교는 소프트웨어, 전자반도체, 정보통신 분야 평가에 참여해 전자반도체분야 전자공학과에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군산대학교는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산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개선해왔다.

이러한 개선 노력으로 지난해 취업률이 63.1%로 전북지역 4년제 대학 중 1위이며, 지역중심국립대 7개 비교대학 중에서도 가장 높다(2017년 대



지난 18일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학평가 결과발표 세미나에서 군산대학교가 2017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전자반도체 분야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학정보공시 기준).

김영철 산학협력단장은 "앞으로도 산학연계 교육체계 구축의 고도화를 위해 산업계와 긴밀히 교류하면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질적으로 일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대는 2016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에서 건축(시공), 토목, 기계, 자동차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으며, 2015년에도 금속분야에서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 익산사랑장학재단 풍성한 기탁행렬

(재)익산사랑장학재단의 강현녀 이사 2백만원 (유)대경기업 1천만원, 익산시 행정지원과 김용신 과장이 3백만원의 장학금을 19일 (재)익산사랑장학재단에 기탁했다.

강현녀 이사는 국내최초로 태양광을 이용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음수대를 개발한 천일석재의 석공기능사 여성 CEO로서 2016년부터 (재)익산사랑 장학재단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2017년부터 매월 소액의 후원을 하던 강현녀 이사는 "평소 지역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오던 중 장학재단을 통한 익산교육의 희망을 전파하기 위해 올해 200만원의 후원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유)대경기업 대표 정인생은 지난 2016년에 1,000만원을 기탁한 데 이어 올해도 1,0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대경기업 정인생 대표는 2016년부터 장학재단의 이사로 취임하여 활발히 활동해오고 있다.

정인생 대표는 "어려운 여건 때문에 희망의 날개를 꺾는 일이 없도록 지역 인재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기탁의 뜻을 밝혔다.

한편 김용신 익산시 행정지원과장은 지난 10일 빙모상의 슬픔이 채가기도 전에 주위분들에게 받은 따뜻한 위로를 지역사랑으로 환원하기 위해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2011년부터 매월 장학금을 후원해 온 김용신 과장은 1981년에 공직에 입문하여 홍보담당관, 복지청소년과장 등을 역임 후 2016년부터 행정지원과장으로 재직 중이며 평소 지역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모범 공무원으로 칭송받고 있다.

(재)익산사랑장학재단 관계자는 "장학재단 후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탁해주신 장학금이 지역 우수 인재 육성에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장왕원 기자

# 관광객 유치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힘 모은다

## 익산시-한국도로공사, 관광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익산시는 오는 5월 4일 개막하는 서동축제 제99회 전국체전과 제38회 장애인체전 등 전국규모 행사를 앞두고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와 손잡고 지역 축제, 행사 등 관광 홍보마케팅에 적극 나선다.

익산시와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19일 익산시청에서 익산 관광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광차량 인차, 행사 등 공동홍보마케팅을 실시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현재 시는 익산의 관문으로 연간 240만여대(400만명) 자동차가 이용하는 익산IC는 물론 도내 7개소 IC에 방호벽 액자, 현수막 활용한 서동축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여산휴게소에 미륵사지, 왕궁리유적, 보석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를 알리는 관광홍보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정현을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대표축제인 서동축제와 전국체전 등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동반자를 만났다"며 "앞으로 전북본부와 협력하여 다시 찾는 행복한 관광도시 익산이 될 수 있도록 관광수용태세로 적극 개선하고 관광 만족도를 높여 관광객 증가와 함께 실질적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호남선 등 6개 노선 총460여km의 고속도로를 전주지사 등 6개 지사와 35개, 여산휴게소 등 24개를 통해 관리하며, 도로를 통해 사람과 사람, 사람과 문화를 연결하여 가슴 따뜻한 스마트한 세상을 열어가고 있다.

/익산=장왕원기자

## 원광대, 프라임 서포터즈 출범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종) 제3기 프라임 서포터즈가 18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방과 후에 모여 발대식을 가진 원광대 제3기 프라임 서포터즈는 공개모집을 통해 열정과 패기를 갖춘 30명의 재학생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각종 프라임 사업을 알리는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에 참여한다.

특히 3기 서포터즈는 기존 1.2기 서포터즈 운영 방식과 다르게 5인 1조로 홍보콘텐츠 제작팀을 구성하고, 프라임사업단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카드뉴스, 영상, 인포그래픽 등 홍보 콘텐츠를 학생들이 공유할 수 있는 블로그 및 SNS에 게시할 계획이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 후에는 피드백을 담당 부서에 전달해 사업성과 및 만족도를 높이고,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발전적 제안 등 사업 모니터링 역할도 수행한다.

배종향 프라임사업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서포터즈 여러분의 책임이 막중하다. 프라임사업에 대한 이해와 함께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활동해주길 바란다"며, "프라임 서포터즈, 활동하라!"는 구호와 함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원광대 프라임 서포터즈는 앞으로 8개월간 각종 사업 모니터링을 비롯해 재학생들의 사업단 프로그램 참여 독려를 위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사업단에서는 미션 수행을 통해 우수 서포터즈도 선발할 계획이다.

/익산=장왕원기자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 '소비자시대 농업의 4차 산업혁명' 특강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는 19일 관내 농업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시대 농업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로 김인식 전 농촌진흥청장의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김 전 청장의 농업정책에 대한 풍부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농업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우리 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고, 아울러 소비자 시대에 대응한 농업인의 자세와 미래농업의 비전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김 전 청장은 "ICT 융복합 산업을 농업과 농촌 전체 분야로 확대하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관심을 갖고, 군산시 농업인들도 미래농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다양한 명사 특강을 진행해 농업정책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며, 아울러 오는 2022년까지 추진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젊은 동력을 육성할 예정이다.

/군산=김정훈기자

## 원광대 식품산업커플링사업단, 마라톤 대회 자원봉사 활동 펼쳐

원광대학교 식품산업커플링사업단(단장 이영은 교수)이 재학생 인성함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최근 열린 제5회 사랑의 거북이 전국마라톤 대회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하나 되어 세상을 향한 힘찬 도전"을 슬로건으로 가장 느리게 달린 선수가 대상을 받는 이 대회는 전국 최대 규모의 거북이 마라톤 대회로 매년 8,000명 이상 참가하고 있다.

이날 마라톤대회는 익산 중앙체육공원 주변 6.5km 단일코스로 진행된 가운데 비가 오는 날씨 속에서도 식품산업커플링사업단 학생들은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대학 산·학·관 커플링 사업은 전라북도가 청년실업 및 구인·구직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도·대학·기업 협력체제로 기업이 선호하는 전문성, 창조성, 인성이 함

양된 경쟁력 있는 우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원광대 식품산업커플링사업단은 최근 3년 평균 취업률 90.7%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11년 연속 이 사업에 선정됐다. 특히 2015·2016년 최우수 S등급, 2017년 '우수 A등급' 평가를 받았으며, 식품산업 전반의 실무능력 및 인성을 갖춘 수 있도록 대학교수, 기업 전문가들이 융·복합 기업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식품품질 안전 및 생산관리·식품연구개발·단체급식 등 다양한 식품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익산=장왕원기자

## '군산시 재난안전네트워크' 발대식

(사)군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백옥경)는 지난 18일 각종 재난을 대비하고 피해상황에 맞는 복구활동을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한 '군산시 재난안전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했다.

군산시 재난안전네트워크는 재난상황 발생 시 원활한 피해복구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뜻을 모은 15개 봉사단체와 5,000여명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됐으며 발대식에 참석한 구성원들은 민간 주도의 재난예방과 재해복구 활동으로 지역 주민의 안전을 책임질 것을 다짐했다.

백옥경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이번

발대식으로 재난안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갑작스러운 재난에 대비하는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사)군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재난안전네트워크 봉사단을 중심으로 오는 5월부터 '제1기 재난안전 교육과정'이 개설돼 지진 안전교육, 풍수해 안전교육, 전선 안전교육, 해양 안전교육, 소강 안전교육, 재난상황 모의훈련 등 6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군산=김정훈기자

어린이 행복동행길

풍화경을 갖춘 동북아경제중심 명품도시 군산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Dream Hub GUNSAN 군산시 GUNSAN CITY